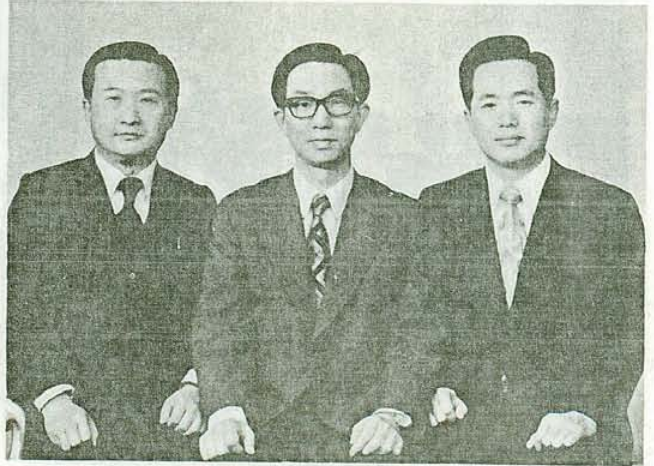


선교부장단



박 재암 제 1 보좌, 브라운 선교부장, 한 인상 제 2 보좌.

스테이크부장단



김 창선 제 1 보좌,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최 옥환 제 2 보좌.

1973년 7월호



내외소식

군산지부 “연극의 밤” 갖다.

지난 5월 30일 군산지부 상호향상회에서는 “연극의 밤”을 갖고 세르반테스 원작인 동키호테를 상연하였다.

이 연극을 관람한 사람들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무척이나 썼다고.

연출은 김 경지 형제가 맡았으며 무대 장치는 김 덕환 형제가 수고해 주셨는데 그의 독특한 솜씨로 만든 말과 풍차는 극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이날 배역에는 동키호테역에 최 종길, 산초역에 홍 성대, 공주역에 신 남수, 진위대장역에 장 동권, 여관 주인역에는 김 경지 형제가 맡아주었다.



성도의 벗 1973년 7월호

첫번 스테이크 대회 성황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청운동에 위치한 제4 와드에서는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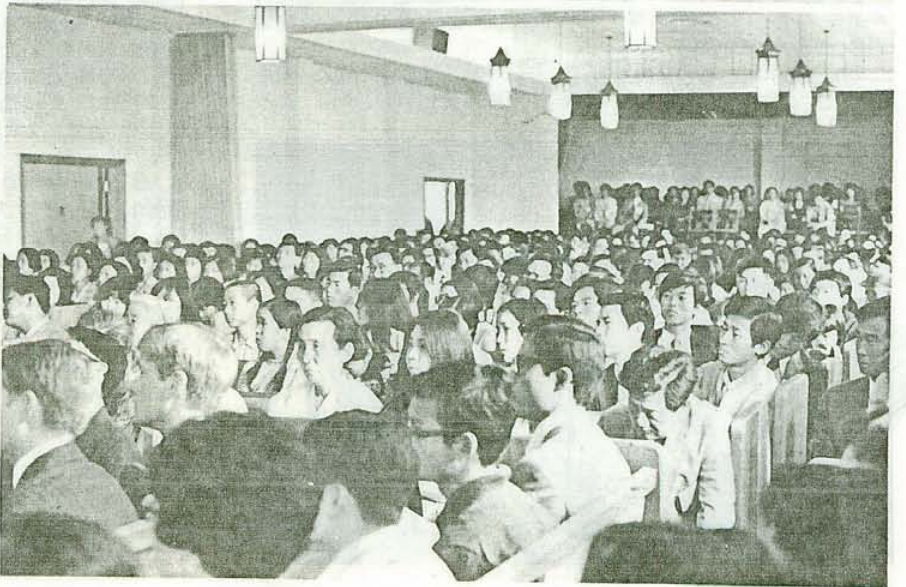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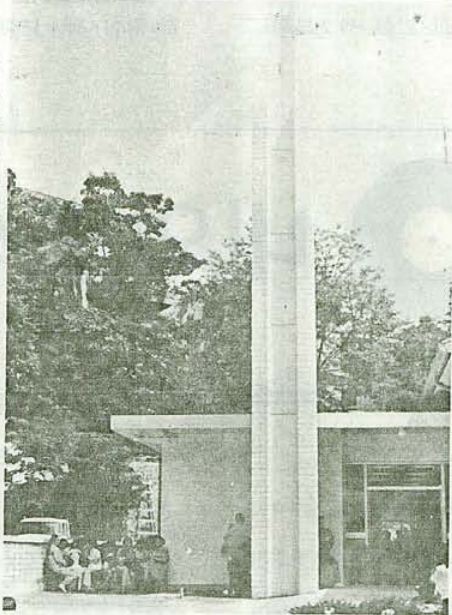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전체 역원회가 있었는데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이자리에서는 지도자들의 듣는 태도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저녁 7시에 가진 가든 파티에는 비활동 회원을 포함한 500여명이 참석하여 장로 정원희와 상호부조회가 준비한 음료수와 간단한 식사를 들며 상호향상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모임은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이 종훈 형제의 드럼 솔로, 2와드의 이 영범, 임 승진, 박 해경, 김 승범, 이 영희, 이 규환, 하 현경 및 김 영주 형제 자매의 북4중창과 민 신희, 김 유미 자매의 2중창, 김 정현 자매의 고전무용과 양 희경 자매의 독창, 텐더 애플즈 합창단의 합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26일 일요일 오전 8시 신권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하여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이어 10시에 열린 일반 총회에는 약 900여명이 참석, 풍성한 말씀을 들었다. 또 중앙 일보를 비롯, 5개의 한글 및 영문 일간지가 대회를 기사로 취급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또 하나의 특기할 사랑은 장로 22명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장로에는 서울와드의 정 대운, 이수환, 이 홍래 형제 제 2와드의 이 규환, 이 형순, 전 경식 형제 제 3와드의 신 재현, 유 재순 형제 제 5와드의 민 신희, 최 석구, 채 익현, 손 철수 형제 제 6와드의 송 영락, 오 용근, 조 웅선, 박 창수 형제 제 7와드의 배 영기, 김 일수 형제와 제 8와드의 박 복주, 배 동규, 송 영규, 홍 성암 형제가 각각 지지를 받았다.



김 석중 형제 “백녹회 미술 전시회”에 출품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신문회관 화랑에서는 김 석중 형제가 소속한 백녹회의 전시회가 있었다.

김형제는 홍익대학원에서 등양화를 연구, 1962년도 제1회 신인예술상 및 제 11회 국전 입선, 1972년에는 비구상화로 전향 제 20회 국전에 작품 「재회」를 출품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미술 협회 회원인 그는 현재 현암사 편집부에 근무 중이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우후”를 비롯한 작품 5점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다.



경기 지방부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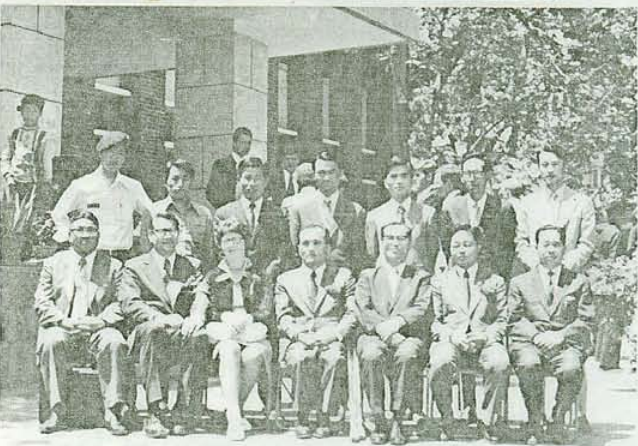
지난 5월 20일 인천지방부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방부가 창설되는 역사적인 모임이 열렸다.

새로 구입한 2000여평의 대지에 자리잡은 건물에서 가진 지방대회에는 약 130명이 참석하여 지방부가 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부장에는 이 용상 형제가 그의 제1보좌에는 허 재형제가 지지를 받았다.

또 지방부 서기에는 정 길수 형제, 집행 서기에는 김 주상 형제, 평의원에는 정 유진 형제와 허 선화 형제가 각각 선임되었다.

경기 지방부에는 수원, 인천, 동인천 및 부평등 4개 지부가 속하게 된다.

수원 지부장에는 변동없이 정 지현 형제가 유임되었고, 이 용상 형제가 지방부장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공식이 된 인천 지부장에는 최 상혁 형제가, 새로 발족한 동인천 지부장에 김 희남 형제, 부평 지부장에 박 준성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영남 지방부 유엔군 묘지 참배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영남지방부에서는 장 재환 지방부장, 배 영천 형제를 비롯한 70여명의 성도가 부산에 자리잡은 유엔군 묘지를 찾아 한국군 36명의 영령앞에 헌화하였다.

잔송과 기도로 전사자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눴다.



한 인상 형제 방미

현재 선교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한 인상 형제가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30분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했다.

한 형제는 약 1개월 예정으로 하와이 및 로스앤젤리스 신전에서 신전 의식에 필요한 번역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혜 지역대회 개최에 관하여

교회는 1973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독 원혜에서 지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리 대관장께서 참석 총관리역원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번 대회의 특기할 사항은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다는 것이다.

영국 만체스터(1971년), 멕시코시(1972년)의 대회는 각각 영어와 서반아어로 진행되나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성도, 불란서어, 이태리어, 서반아어, 화란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모두 함께 모인다.

본부 성도의 첫 담당자가 대회에 참석하여 사진 촬영, 인터뷰등 대회 활동의 전모를 취재 전담할 것이다.

성도의 벗에서는 앞으로 원혜 대회 이외에도 교회의 경전, 선교 사업, “세계적인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으로 있다.